

# 주의 뜻을 이루어 주를 기쁘게 하는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 동산교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로 70  
063)211-8913  
[www.jdongsan.org](http://www.jdongsan.org)

인도 : 김신일목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목상기도	/ 다 같 이	
기 원	/ 인 도 자	
* 경배찬송	25장	/ 다 같 이
28. 시편 63편		
* 성시교독	인도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회 중/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인도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회 중/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인도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회 중/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인도자/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회 중/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인도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회 중/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 신앙고백	인도자/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회 중/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다같이/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 송	442장	/ 다 같 이
기 도	1부: 김태선장로 2부: 김석곤장로	
성경봉독	렘 29:4~14 (구약1096p)	/ 다 같 이
찬 양	1부: 시온찬양대 2부: 호산나찬양대	
설 교	평안과 미래와 희망	/ 김신일목사
기 도		/ 다 같 이
찬 송	445장	/ 다 같 이
봉헌기도		/ 설 교 자
교회소식	새가족 환영, 성도의 교제	/ 인 도 자
* 찬 송	635장	/ 다 같 이
* 축 복		/ 설 교 자

\* 표는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 권사회연합 헌신예배

찬양 : 로고스찬양단

인도 : 안수봉권사

신 앙 고 백	다같이
찬 송	295장
기 도	조영순권사
성 경 봉 독	행 9:36~43
특 송	권사회연합
설 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 /김신일목사
찬 송	317장(헌금)
광 고	김신일목사
축 복	김신일목사

## 수요예배

오후 7:30

찬양 : 카리스찬양단

인도 : 김진기목사

신 앙 고 백	다같이
찬 송	384장
기 도	구영순권사
성 경 봉 독	왕하 19:14~19
찬 양	할렐루야 찬양대
설 교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김진기목사
찬 송	542장
광 고	김진기목사
축 복	김진기목사

## 새벽기도회

오전 5:00

성경본문 및 주제 /

인도 / 김진기목사(7/15~18)

박정길목사(7/19~22)

## 봉사위원 7월

주일1부	안내	김석곤 이순재 이숙자 / 실내안내 : 지순자 이득희
	헌금	국중홍 김재순 김진순 심해련 김분이
주일2부	안내	김태선 장미화 윤인숙 / 실내안내 : 구영순 김숙희
	헌금	김창섭 김미애 노정숙 양연숙 박정인 인세라 신인숙 김선자b 김순애

## 예배위원

		7/15	7/22	7/29	8/5	8/12
주일1부	기도	김태선	배태열	김영택	박정기	홍순정
주일2부	기도	김석곤	김태선	배태열	김영택	박정기
주일오후	기도	권사회연합	박금순	지순자	송보덕	장미화
수요예배	기도	구영순	노정선	윤인숙	오명자	이진순



## 교회소식

\* 새로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 □ 모임 및 안내

- 새가족 교육 : 동산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은 매 주일 오후 1시, 2층 새가족실에서 교회의 전반적인 안내 및 새 생명반 교육이 있습니다.
- 권사회연합 헌신예배 : 오후예배는 권사회연합 헌신예배로 드려집니다.
- 월례회 : 2,3남전도회, 1,2,3,4,5여전도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4여전도회 오후예배 후 2층 유아실)
- 전복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 7/16(월) 오후2시, 생명의빛 교회당
- 화요기도회 : 오전 10시, 저녁 7시 30분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 □ 2018년 제4차 태국치앙마이 단기선교

- 2018년 제4차 태국치앙마이 단기선교(한용관선교사)가 7월 16일(월)~7월 21일(토)까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사역 : 복음전도사역, 현지인교회 및 마을사역

### □ 동산교회 정관 및 시행세칙 열람

- 동산교회 정관 및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열람합니다.  
열람기간 : 7월 8일(주일)부터 3개월간  
열람방법 : 교회 홈페이지에 공고(홈페이지 회원 가입후 열람가능)  
문의 : 김석곤 장로(010-3655-9191), 김진기 목사(010-8983-2323)

### □ 2018년 주일학교 여름 사역

주일학교 여름사역이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7/21(토)~22(주일)	7/27(금)~29(주)	7/26(목)~28(토)	7/26(목)~28(토)	8/15(수)~18(토)
본 교회	본 교회	웅천소망교회	중부대학교	웅천소망교회

### □ 교우소식

- 소천: 故 최양림권사(1-6구역,정은숙집사(성선종집사)친모상) 7/11(수) 위로와 기도 부탁.

## 지난주일 설교요약

■ 2018년 7월 8일 동산교회 설교 /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시 63:1-11)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 두 번이나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자신을 질시해서 죽이려 할 때 그의 추격을 피해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또다시 광야로 내몰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예루살렘을 찬탈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경우 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 다녔습니다.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 다녔습니다. 광야,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본문 1절)**에서 불편함을 견뎌야 했고 외부의 더 강한 세력이 쫓혀 들어오는 죽음의 그물에 갇히지 않기 위해 다윗은 필사적으로 벗어나야 했습니다. 광야생활의 환난과 시련,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본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간절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이 상황에서 구출해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두려움 앞에서 그는 절박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힘이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은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노래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 곧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셔서 언약백성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다고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를 달콤하게 추억하면서 드리는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사를 넘나들며 **광야생활의 곁집과 불편을 겪으면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별별 떨면서 드리는 영적투쟁의 확인입니다.** 하나님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너는 나를 도장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라 사람은 죽음을 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 같이 잔인하며 불길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와 불과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향해 질투하시고 그 사랑에 반응할 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들의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고백을 듣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광야생활의 혹독한 환난과 시련 속에서, 생명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구할 때나 가능한 고백입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다윗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다윗이나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8-39)** 아멘.

##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3문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할 것과<sup>1</sup>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한 것입니다.<sup>2</sup>

참조성구 1) 요 20:31 전 12:13  
2) 미 6:8 딤후 1:13~14 3:16



## 동산교회 소개

### 예배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	오전 9:00	본당
주일2부	오전 11:00	본당
주일오후	오후 4:00	본당
수요예배	오후 7: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유치부	오전 11:00	본당1층
유년부	오전 11:00	교육관3층
초등부	오전 11:00	교육관2층
중등부	오전 11:00	소예배실
고등부	오전 9:00	소예배실
청년부	오후(토) 6:30	소예배실

### 선교현황

#### 파송선교사

김경애(필리핀)

#### 협력선교사

##### 교회

복있는, 새사람, 구미중앙, 섬김, 창신, 덕천, 한반도, 주원, 희망의, 에덴힐, 반석, 삼유, 주향기, 한소망, 매암제일, 구레온당, 공향, 보안제일, 예수마을, 학동, 신동, 한몸, 울타리, 참좋은반석, 작은샘골공동체

##### 해외

박정대(시에라리온), 한용관(태국), 김환준(홍콩), 이강용(필리핀), 장순이(남아공), 김경신(브라질), 방치성(키르기스스탄), 오영조(인도네시아), 권능(러시아)

##### 기관

(사)사랑자리, 전주교도소, 군포사회복지관, 한국OMF선교회, 어린이전도협회

### 오시는 길

[54847] 전북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로 70



사무실 063)211-8913 교역자실 063)213-0018  
팩스 063)211-8910 유치원 063)212-5595

###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신일  
부목사 김진기 박정길  
강도사 송춘우  
교육전도사 황영하 유기준 이영란  
파송선교사 김경애  
원로장로 심두섭 송화섭 김장수  
은퇴장로 정동우 이석문 이기전 김동만  
시무장로 김석곤 김태선 배태열 김영택  
박정기 홍순정 송재덕  
협동장로 이봉룡 진춘경 한재성  
지휘 김성진 김한나  
오르간 배옥희 주혜진  
피아노 손세리 박지영 서선영 홍단비  
송하은  
관리집사 류경문  
사무간사 송이화  
차량 김상식

## 기뻐하라!

성경에는 “기뻐하라!”는 명령이 여러번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회 일각에서 바라보는 기독교는 때로 ‘침울한 기독교’처럼 보이는 듯합니다. 기독교가 너무 침울하다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다음과 같은 말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구원받은 티를 좀 더 많이 내야 한다.” ‘구원받은 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쁨 아니겠습니까? 니체는 기쁨이 사라진 기독교의 급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 노래가 기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듯합니다. 루이 암스트롱이 부른 “What a wonderful world”라는 노래의 가사가 참 아름답습니다:

“나는 푸른 나무와 빨간 장미를 바라봅니다. 그 나무와 꽃이 당신과 나를 위해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생각해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

나는 아기들이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이 자라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들은 내가 알려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생각해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 그래요 나 혼자 생각해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

생각해보면 이 노래 가사가 맞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세상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실제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쁘십니까? 이 멋진 세상을 누리고 계십니까?

전도서 11장 7-8절에서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라도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라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삶, 기쁨의 삶을 언제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고 내면의 평화를 누릴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과 더불어 ‘더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벌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섬김의 삶을 위한 영적전쟁을 자신의 내면 안에서 벌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전쟁은 떡을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전쟁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떡을 내려놓고 나누기 위한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일까요? 세례요한은 다 빼앗긴 것 같았지만 내면에 비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주셨지만 기쁨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쁨, 세례요한의 기쁨, 이러한 기쁨은 곧 섬김의 기쁨이요 존재의 기쁨이요 새 생명의 기쁨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우리에게 되는 기쁨이요 영적전쟁에서 승리한 그리스도의 군병들이 누리는 기쁨입니다.